



## 열네번째 이야기

### 하나님께서 BEE Koea에게 복음을 맡기시다

지난 몇 년간 내 삶의 속도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느리다고 생각했다. 다급한 마음으로 빠르게 걸었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고 말았다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에 잠기곤 한다. 삶의 속도보다도 삶의 방향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나쁜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도 살면서 한번쯤은 아니 자주 자신이 걷는 삶의 속도계를 들여다보곤 할 것이다.

작년 11월 다시 BEE 토요일모임에 참석하였다. 여전히 내 동역자들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고, 나는 또 다시 한참이나 뒤쳐진 내 모습과 마주하게 된다. 그 때마다 다가와 나를 반겨주는 사람들, 멀리서 미소지어주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All & One에 참석하는 날이다. 어린이날이라서 가는 길이 많이 밀릴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예담원으로 향하는 길은 원활하다.



차창으로 불어오는 산들바람이, 어느 산을 넘어 왔는지 구름이, 나와 함께 봄 햇살을 나누어 가지자고 따라온다. 날씨도 좋고 바람도 좋다. 간간히 구름이 떠다니는 장흥 가는 길 그 길을 따라 가다보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일찍 도착하여 봄내음을 맡고 있다.

일정표를 받아보니 쉽지 않은 일정이다. 프로그램 순서는 주제 강의가 3차례이고 찬양과 기도도 3차례나 있다. 율동도 있다. 그러나 모든 순서가 매우 중요하고 많은 울림을 주는 내용이다. 조문상 선교사님의 주제 강의는 간단명료하지만 우리 정체성과 사역에 대해 확신을 주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BEE의 사역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깊은 감동을 받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시간이다. 이것은 비단 나만의 생각은 아니리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물으며 살아가야하는 것일까? 그리고 무엇을 답하며 살아야 할까? 그 질문과 답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았는가? 에 관한 질문과 답이다. 매주 교회에 나가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질문과 답을 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는지 궁금하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다.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는 놀랄 만큼 적다. 또한 자신이 구원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오직 믿음의 복음이 구원받는 조건이라는 것을 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강의를 통해 깨닫게 되었다. 영혼 구원, 복음, 말씀의 주제 강의는 BEE를 너머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BEE KOREA는 선교단체로써 정체성이 확실하다. 또한 BEE 세미나 인도자들 역시 확실한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다. '하나님께서 BEE에게 갈라디아서를 맡기시다'라는 조문상 선교사님의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준다. 우리는 구원 받은 사람으로 적당한 선 즉, 그 어떤 경계선에도 서지 않는다. 우리는 복음 앞에 당당하게 서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의 당당함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99%로 구원, 1% 부족하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순도 100% 구원을 얻고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로서 헌신하

는 BEE 선교사님들과 BEE 인도자들의 모습 속에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형상이 더 많이 나타나기를 소망한다.

복음이 이단이 되는 세상은 참으로 세상 곳곳에 널리 퍼져있다는 것과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매우 적다는 사실이 놀랍고 또 놀랍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 안에 포함되었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기만 하다. 그래서 BEE 사역자들은 갈라디아서를 펼쳐놓고 진정한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지 못한 복음주의자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야한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된다. 오늘

5:15 율동.

율동이라면 성경학교 때마다 배워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주었던,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하며 손을 들었던,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익숙한 몸동작일거라는 착각했던 생각을 깨는 시간이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조금은 멧쩍은 미소를 지으며 어쩌다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기라도 하면 높이 올렸던 손들이, 시간들이, 주춤주춤해지기도 했던, 더 높이 뛰고 더 많은 이들과 손뼉을 치는 동안 굳어진 우리 근육의 세포들이 깨어나고 있다.

아니다. 주님께서 우리 심장에 넣어주신 주님의 마음이 깨어났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세포들이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었진 형제와 자매라는 친밀함의 세포가 리듬을 타며 툭툭 터지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였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어울리며 조화를 이루는 즐겁고 기쁜 시간이다.

우리는 마음을 합해 찬양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회개하는 기도는 영적으로 뜨거운 에너지가 흘러나오게 만든다. 그래서 그 시간 자신의 속사람을 마주하게 된다. 봄날이 깊어만 간다. 수련회에 부모와 함께 참석한 네 명의 아이들은 밤10시가 넘었는데도 뒤쪽에 앉아 자신들의 놀이를 하고 있다. 그 아이들의 소리를 들으며 차세대들을 위해 기도를 한다.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그들의 친구들과 그 친구의 친구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며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대한민국의 교회에서 복음이 선포되기를...



모든 프로그램이 지루할 틈도 없이 지나가지만 잠시 쉬는 휴식 시간은 화살처럼 지나가서 언제나 못 다한 얘기를 남겨두고 다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 아쉬움이 가득하다. 그래도 즐겁다. 그래도 행복하다. 이런 감정을 아끼고 싶지 않은 마음이다.

수련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며 나는 내 삶의 속도와 BEE 사역의 속도를 생각한다. 내 삶의 속도는 주님 안에서 그 어떤 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만다는 것을. 그 이유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걷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어제 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더 많이 체험하게 되고 알게 될 것이다.

금홀 사역과 물질 사역의 선교자원이 넘치는 이 시대에 BEE KOREA의 선교자원은 제한 될 수밖에 없다.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거짓 진리와 그릇된 사상들은 언제나 진리보다 훨씬 그럴 듯하고 더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BEE의 사역자들은 우리보다 앞선 걸어가셨던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곳곳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다. 세상의 속도보다 느린 BEE의 사역들, 이제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 영혼 구원과 복음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집중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된다. 그것이 우리의 은혜요. 우리의 살길이다.

All & One을 준비하며 애썼던 스태프들, 간식이며 장소 섭외 등 보이지 않은 곳에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글:김진하, 편집:이경주)

새순처럼 깨어나고 있다  
손발을 높이 들 때마다  
리듬에 맞춰  
잠자던 세포들이  
우리 몸속에 켜켜히 쌓여 있던  
'함께' 라는 세포들이  
  
때로는 혼자라고 생각했을,  
여럿이 걷고 있지만  
혼자 걷고 있다는 낯선 생각을 했을  
우리가

서로서로 잡은 손을 통해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서로의 눈빛을 통해  
너와 나 우리는 하나라는 세포들이 활발하게  
깨어나고 있다

내 마음이 너에게로 열리고  
네 마음이 내게로 다가오고 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가 심어주신 사랑으로

---

## BEE 소식

---

- 다음 주 네팔을 시작으로 2017 Be There Again 아웃리치가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 현지로 나가서 그곳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세미나도 참관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 알 브리지스 선교사님이 인도하시는 시편 세미나가 개강합니다.
- 호남 선교현장을 돌아보는 "찾아온 사랑을 찾아서" 세미나가 6월에 진행됩니다.